

과제구분	기관고유	수행시기		전반기	
		연구분야	수행기간	연구실	책임자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		농업경영	'23 ~ '27	작물연구과 농업분석팀	이정명
농업경영체 패널 구축 및 활용 연구		농업경영	'23	작물연구과 농업분석팀	김혜형
색인용어	농업경영체, 패널, 농업정책				

ABSTRACT

In recent years, rapid changes in the agricultural environment due to climate change, an aging population, and increasing macroeconomic instability have necessitated the implementation of new policies and adaptation strategies to stabilize agricultural manageme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quickly understand how farmers perceive and respond to these changes and reflect them in research, guidance, and policies.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on 90 farmers (30 rice farmers, 31 soybean farmers, and 29 garlic farmers) on the panel of agricultural management over a period of five months from August to December 2023. The survey evaluated their management status, perception of agricultural policies, and satisfaction. As a result, the rice farmers panel found that it needed to improve its management practices, especially to improve the utilization rate of fields and to implement marketing strategies. The soybean farmers panel suggested that guidance on the operating system would be beneficial, while the garlic farmers panel suggested that there was a need to strengthen management capacity with technical guidance on crop rotation.

The opinion of ‘dissatisfaction’ with agricultural and rural policies was about 1.8 times higher than ‘satisfaction’, and the lack of rural labor shortages, climate change and agricultural price stability were recognized as important. Through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major agricultural policies in 2023, we intend to identify the effects of agricultural policies, discover problems,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agricultural sector and the management efficiency of farmers will be improved.

Key words: Agricultural Management, Panel, Agricultural Policy

1. 연구목표

최근 농업환경은 기후변화, 고령화, 3고현상(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에 따라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였으며, 코로나19, 러-우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거시경제의 불안정 고조 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농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조사한 「2022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농가소득은 평균 4,615만원으로 전년대비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은 평균 농업소득은 2013~2017년 1,034만원 대비 2018~2022년이 1,149만원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22년 농업소득이 7.4% 큰 폭으로 하락('18년) 1,292만원 → '22년) 949만원)하여 농업소득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 경영위험관리가 중요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가경영 안정화, 농가 고령화 완화 등을 위해 공익직불제 확대, 청년농 육성사업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시행에 따른 즉각적인 농업 현장의 반응, 요구사항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정책 참여도를 높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농촌경제연구원(KRED), 통계청에서는 통계 구축 목적으로 '농가경제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고, 농촌진흥청은 1977년부터 '농산물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경영개선 기초자료 및 농업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2008년부터 '농업생산자패널 조사' 사업 추진으로 2022년 기준 경북지역 10품목(벼, 콩 등)을 대상으로 경영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농가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농진청과 각 도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생산자 패널을 구축하여 주요 농산물의 농가현황, 경영역량, 기술경영 등을 조사·분석한 바 있다. 이춘수 등(2021)은 경북지역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 대상으로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주거기준 강화 조치와 비공식 경로를 통한 고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처럼 농업 현장 중심의 연구·지도·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DB구축을 통한 농업경영체 경영실태에 대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수집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농업경영체의 영농실태와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농업경영체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농업기술 수요 및 농업정책 만족도를 조사·분석하여 향후 농업 연구, 지도 및 정책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경기도 농업경영체 패널 구축을 위해 통계청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농촌진흥청 「2022년 농산물소득자료집」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한 경기도 조사 작목으로 논벼, 콩, 마늘 3작목을 선정하였고 작목별 지역별 농가수 및 재배면적에 대한 비례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 경기도 농업경영체 패널을 선정하였다. 조사기간은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 동안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온라인, 전화, 방문)하였고, 전화나 면접 조사를 통해 보완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일반현황(지역, 연령, 재배면적 등), 표준진단, 농업정책 인식 등으로 작목별 경영 표준진단을 위해 2023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경영 표준진단표를 활용하였다. 경영 표준진단표는 세부 지표별로 농업인 또는 조사자가 ‘Ⅰ~Ⅴ등급’ 중에서 해당하는 요소에 체크하는 방식으로(‘Ⅴ등급’으로 갈수록 상위 수준) 세부요소 항목별 가중합으로 종합점수를 산출하여 경영 수준을 진단할 수 있다. 종합점수가 높을수록 경영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0~20점은 ‘Ⅰ등급’, 21~40점은 ‘Ⅱ등급’, 41~60점은 평균 수준인 ‘Ⅲ등급’, 61~80점은 ‘Ⅳ등급’, 81~100점은 가장 상위 수준인 ‘Ⅴ등급’으로 분류하였다.

농업정책 인식 조사는 2023년 주요 농업정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농업분야 주요 정책 중 경기도 논벼, 콩, 마늘 패널 주요 경영이슈인 1)전략작물직불제 시행, 2)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3)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본격 시행, 4)청년농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개편, 5)농산물 온라인거래소 출범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가. 농업경영체 패널 현황

경기도 농업경영체 패널은 모두 90농가로 이들의 지역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지역은 용인시, 화성시 등 10개 시군이었고, 시군별로는 화성시, 파주시가 15명(16.7%)로 가장 많았고, 논벼와 마늘 패널의 약 90%가 경기 남부에 분포하고 있는 것에 반해 콩 패널은 경기 북부에 67.7%가 분포하고 있었다.

표 1. 경기도 농업경영체 지역별 분포

(단위: 농가, %)

구 분 합계	경기 남부										경기 북부	
	용인	화성	평택	이천	안성	양평	여주	파주	포천	연천		
논벼	30	-	6(20.0)	6(20.0)	6(20.0)	3(10.0)	-	6(20.0)	3(10.0)	-	-	
콩	31	-	3 (9.7)	3 (9.7)	1 (3.2)	-	3 (9.7)	-	9(29.0)	3(9.7)	9(29.0)	
마늘	29	3(10.3)	6(20.7)	-	7(24.1)	7(24.1)	-	3(10.3)	3(10.3)			
합계	90	3	15	9	14	10	3	9	15	3	9	

나. 경기도 농업경영체 패널 경영 표준진단 결과

1) 표준진단조사 응답자 일반현황 분석

일반현황 및 표준진단조사 응답자는 모두 78농가로 경기도 농업경영체의 연령분포는 60대 이상이(33.3%) 가장 많고, 40대(26.9%), 50대(20.5%), 30대(12.8%), 30대 미만(6.4%) 순으로 나타났다. 논벼와 콩 패널은 40대(각각 28.6%, 34.6%)가 가장 많았고, 마늘 패널은 60대(45.8%)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경기도 농업경영체 연령분포

(단위: 명, %, 세)

구 분	30대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평균
논벼	4(14.3)	4(14.3)	8(28.6)	5(17.9)	7(25.0)	28	46.5
콩	-	4(15.4)	9(34.6)	5(19.2)	8(30.8)	26	51.8
마늘	1 (4.2)	2 (8.3)	4(16.7)	6(25.0)	11(45.8)	24	55.2
합계	5 (6.4)	10(12.8)	21(26.9)	16(20.5)	26(33.3)	78	51.2

응답자의 평균 재배 경력은 논벼 20.1년, 콩 13.8년, 마늘 6.4년 순으로 나타났고, 마늘 패널은 재배경력 ‘10년 미만’에 19명(79.2%)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경기도 농업경영체 재배경력별 농가 분포

(단위: 명, %, 년)

구 분	10년 미만	10년~20년 미만	20년~30년 미만	30년~40년 미만	40년이상	합계	평균
논벼	7(25.0)	8(28.6)	5(17.9)	3(10.7)	5(17.9)	28	20.1
콩	8(30.8)	8(30.8)	7(26.9)	3(11.5)	-	26	13.8
마늘	19(79.2)	5(20.8)	-	-	-	24	6.4
합계	34(43.6)	21(26.9)	12(15.4)	6(7.7)	5(6.4)	78	13.4

2) 논벼 패널 경영 표준진단 결과

논벼 패널의 경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쌀 경영 표준진단표’를 활용하여 조사하였고, 생산기반 이용률, 재배관리, 경영관리 3개 부문으로 조사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표준진단 점수를 산출하였다. 연령대에 따라 비교하였을 때, ‘60세 이상’의 표준진단 점수가 57.5점으로 가장 낮았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 경영관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0세~60세 미만’의 64.3%가 표준진단 상위 등급인 IV등급에 분포하고 있어 다른 연령대 대비 재배관리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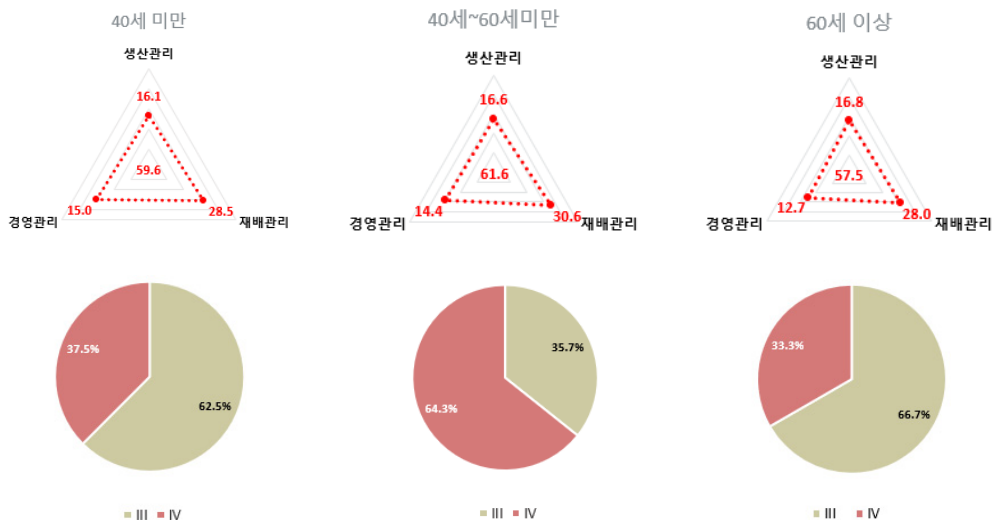


그림 1. 논벼 패널 연령대별 경영 표준진단 결과

재배경력별 표준진단 점수와 상위등급(Ⅳ등급) 분포 비율은 그림 2와 같다. 표준진단 점수는 재배경력 ‘10년~30년 미만’에서 62.5점으로 가장 높았고 부문별로는 경영관리와 재배관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년~30년 미만’의 69.2%가 표준진단 상위 등급인 Ⅳ등급에 분포하고 있어 다른 연령대 대비 재배관리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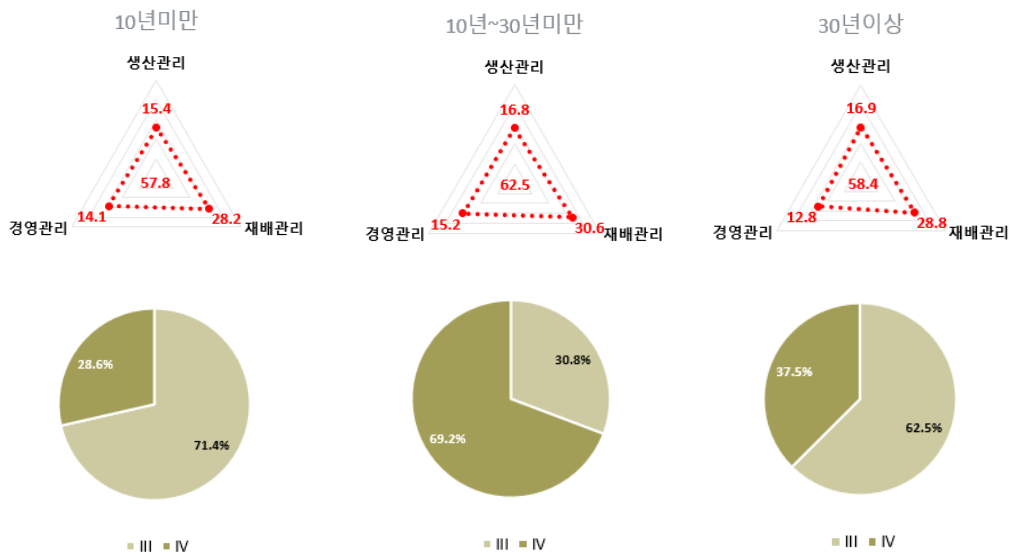


그림 2. 논벼 패널 재배경력별 경영 표준진단

경기도 논벼 패널의 경영 표준진단 결과는 표 4와 같다. 생산기반 관리 부문 중 ‘논 이용률’ 지표에서 논벼 패널의 67.9%가 가장 하위 수준인 I 등급(논 이용률 75% 미만)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모작 도입 등 논 이용률 향상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기계 운전’ 지표는 패널의 92.9%가 평균 수준인 III 등급(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 기본적 조작 가능) 이상을 선택한 것에 반해, ‘농기계 관리 및 정비’ 지표에서 89.3%가 하위 수준인 I~II 등급(선택사항 없음~농기계 관리 및 정비 기술수준 1개 선택)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 패널 대부분이 농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것에는 어려움은 없으나 농기계 관리 노력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배관리 및 수확후 처리 부문 중 ‘품종선택’, ‘방제’ 지표에서 논벼 패널의 70% 이상이 상위 등급(IV, V 등급)인 것에 비해, ‘과중/이앙’ 과 ‘수확 및 수확 후 처리’ 지표에서는 92.9%, 85.7%가 하위 등급인 II 등급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농가의 노력과 함께 관련 기술 지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관리 부문의 ‘마케팅 실천’ 지표에서 논벼 패널의 96.4%가 ‘마케팅 활동이 없다’ 또는 ‘마케팅 활동 1개를 실천한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대부분의 쌀이 수매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마케팅 활동의 필요성이 다른 작목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논벼 패널 부문별 경영 표준진단 등급

(단위: 명, %)

부 문	지 표	등 급				
		I	II	III	IV	V
생산기반 관리	경지정리율	6(21.4)	3(10.7)	4(14.3)	9(32.1)	6(21.4)
	필지집단화	6(21.4)	5(17.9)	7(25.0)	10(35.7)	-
	논 이용률	19(67.9)	1 (3.6)	3(10.7)	4(14.3)	1 (3.6)
	농기계운전	-	2 (7.1)	18(64.3)	3(10.7)	5(17.9)
	농기계관리 및 정비	1 (3.6)	24(85.7)	-	1 (3.6)	2 (7.1)
재배관리 및 수확 후 처리	품종선택	1 (3.6)	1 (3.6)	5(17.9)	6(21.4)	15(53.6)
	농토배양	1 (3.6)	3(10.7)	12(42.9)	8(28.6)	4(14.3)
	과중/이앙	-	26(92.9)	1 (3.6)	1 (3.6)	-
	거름주기	-	7(25.0)	8(28.6)	3(10.7)	10(35.7)
	방제	-	2 (7.1)	6(21.4)	16(57.1)	4(14.3)
	수확 및 수확 후 처리	-	24(85.7)	1 (3.6)	-	3(10.7)
경영관리	경영기록 및 분석	3(10.7)	15(53.6)	6(21.4)	2 (7.1)	2 (7.1)
	자금관리	3(10.7)	12(42.9)	9(32.1)	4(14.3)	-
	농업정보활용	1 (3.6)	4(14.3)	2 (7.1)	13(46.4)	8(28.6)
	판매관리	1 (3.6)	1 (3.6)	14(50.0)	9(32.1)	3(10.7)
	마케팅 실천	1 (3.6)	26(92.9)	1 (3.6)	-	-

3) 콩 패널 경영 표준진단 결과

콩 패널의 경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콩 경영 표준진단표’를 활용하여 조사하였고, 생산기반, 기계화, 재배관리, 경영관리 4개 부문으로 조사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표준진단 점수를 산출하였다. 연령대별 경기도 콩 패널의 표준진단 점수는 ‘40세 미만’ (69.5점), ‘40세~60세 미만’ (62.6점), ‘60세 이상’ (66.2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표준진단 상위 등급(Ⅳ, Ⅴ 등급) 분포 비율은 ‘40세~60세 미만’이 57.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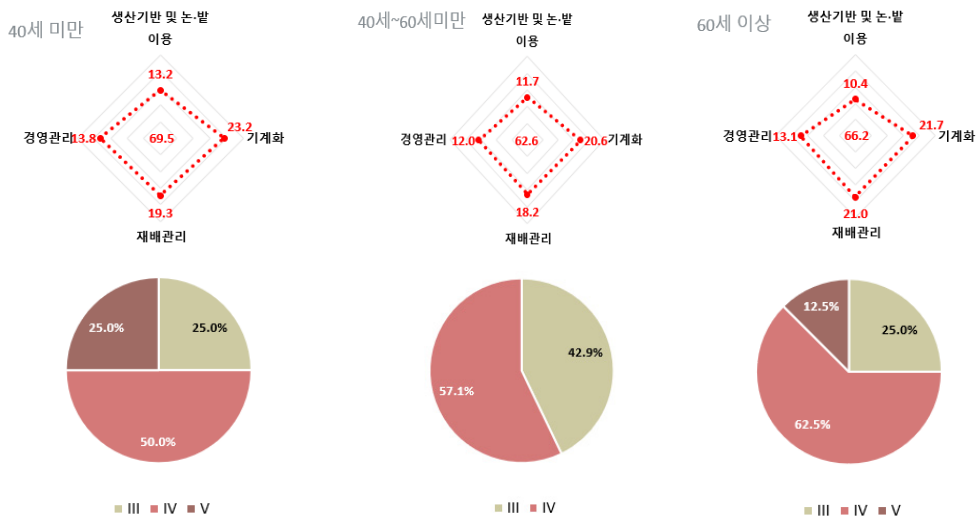


그림 3. 콩 패널 연령대별 경영 표준진단 결과

재배경력별 표준진단 점수는 재배경력 ‘10년 미만’ 일 때 62점으로 가장 낮았으나 표준진단 상위 등급(Ⅳ, Ⅴ 등급) 비율은 재배경력에 따른 큰 차이가 없었다. 표준진단 4개 부문 중 ‘생산기반 및 논·밭 이용’이 다른 부문 대비 관리 수준이 낮은 편이었고, 특히 재배경력 ‘30년 이상’ 일 때 ‘생산기반 및 논·밭 이용’ 점수가 8.6점으로 낮게 나타나 경지 정리, 논·밭 이용률 향상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4).



그림 4. 콩 패널 재배경력별 경영 표준진단(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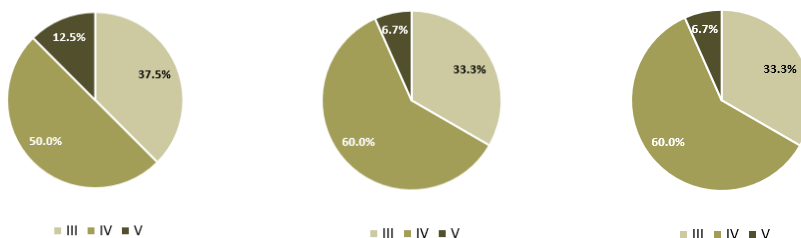


그림 4. 콩 패널 재배경력별 경영 표준진단

경기도 콩 패널의 경영 표준진단 결과는 표 5와 같다. 생산기반 관리 부문 중 ‘경지 정리율’ 지표에서 경기도 콩 패널의 65.4%가 I 등급(콩 경작지 중 30% 미만) 또는 II 등급(30~55%가 경지 정리가 되어 있다)으로 응답하였고, ‘논·밭 이용률’ 지표에서 패널의 76.9%가 하위 등급(I 등급 ‘논·밭 이용률 100% 미만’, II 등급 ‘100~109%’)으로 응답하여 생산기반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지 정리 및 이모작 작물, 작부체계 등에 대한 연구·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계화 부문의 ‘농기계 운전능력’ 지표에서 경기도 콩 패널의 80% 이상이 상위 등급(IV, V 등급)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농기계 운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기계화 정도’ 지표에서 패널의 20%가 ‘경운·정지, 파종, 시비, 방제, 수확, 건조 등 완전 기계화’ (V 등급)가 되어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5. 콩 패널 부문별 경영 표준진단 등급

(단위: 명, %)

부 문	지 표	등 급				
		I	II	III	IV	V
생산기반 관리	경지 정리율	12(46.2)	5(19.2)	3(11.5)	4(15.4)	2 (7.7)
	필지당 규모	1 (3.8)	4(15.4)	11(42.3)	8(30.8)	2 (7.7)
	필지 집단화	6(23.1)	6(23.1)	10(38.5)	3(11.5)	1 (3.8)
	논·밭 이용률	12(46.2)	8(30.8)	4(15.4)	-	2 (7.7)
기계화	농기계 운전능력	-	-	4(15.4)	9(34.6)	13(50.0)
	농기계 정비능력	-	10(38.5)	7(26.9)	7(26.9)	2 (7.7)
	농기계 관리	2 (7.7)	3(11.5)	13(50.0)	8(30.8)	-
	기계화 정도	1 (3.8)	1 (3.8)	9(34.6)	10(38.5)	5(19.2)
재배관리	농토 배양	1 (3.8)	3(11.5)	13(50.0)	8(30.8)	1 (3.8)
	품종 선택	1 (3.8)	5(19.2)	5(19.2)	11(42.3)	4(15.4)
	파종시기	1 (3.8)	8(30.8)	7(26.9)	6(23.1)	4(15.4)
	시비	-	10(38.5)	7(26.9)	7(26.9)	2 (7.7)
	병해충 방제	1 (3.8)	3(11.5)	11(42.3)	7(26.9)	4(15.4)
	제초	-	2 (7.7)	11(42.3)	7(26.9)	6(23.1)
	수확시기 결정	-	-	10(38.5)	9(34.6)	7(26.9)
	수확 후 관리	1 (3.8)	2 (7.7)	12(46.2)	5(19.2)	6(23.1)
	경영계획 수립	-	9(34.6)	7(26.9)	6(23.1)	4(15.4)
경영관리	경영기록 및 분석	2 (7.7)	12(46.2)	8(30.8)	3(11.5)	1 (3.8)
	자금관리	-	15(57.7)	7(26.9)	3(11.5)	1 (3.8)
	농업정보 수집활용	-	2 (7.7)	4(15.4)	11(42.3)	9(34.6)
	판매관리	-	5(19.2)	8(30.8)	6(23.1)	7(26.9)
	경영주 의식	-	1 (3.8)	11(42.3)	6(23.1)	8(30.8)

4) 마늘 패널 경영 표준진단 결과

마늘 패널의 경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콩 경영 표준진단표’를 활용하여 조사하였고, 종구관리, 생육관리, 경영관리 3개 부문으로 조사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표준진단 점수를 산출하였다. 연령대별 경기도 마늘 패널의 표준진단 점수는 ‘40세~60세 미만’에서 70.6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60세 이상’에서 59.3점으로 가장 낮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경영관리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였다. 연령대별 경영 표준등급 또한 연령대가 낮을수록 상위 등급(Ⅳ, Ⅴ 등급) 비율이 높았으며, 경기도 마늘 패널 중 ‘60세 이상’ 상위 등급 비율은 36.4%에 그쳐 경영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준진단 부문 중 ‘경영관리’가 다른 부문 대비 표준진단 점수가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고, ‘60세 이상’인 경기도 마늘 패널의 ‘경영관리’ 부문 점수가 9.7점으로 낮게 나타나 경영기록 및 분석, 마케팅 및 판촉활동, 경영컨설팅 등의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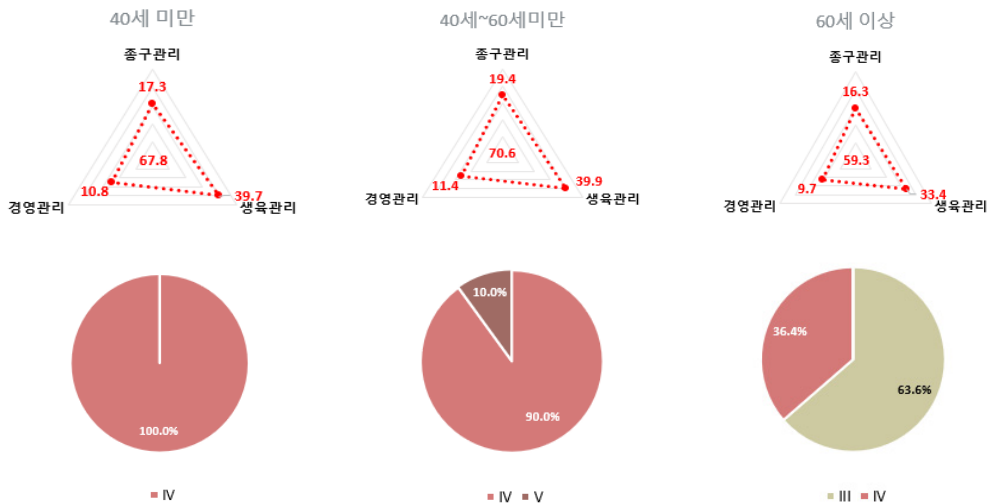


그림 5. 마늘 패널 연령대별 경영 표준진단 결과

경기도 마늘 패널은 모두 재배경력 ‘30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배경력에 따른 표준진단 점수 차이는 없었으나 상위 등급(Ⅳ, Ⅴ 등급) 분포 비율은 재배경력 ‘10년 미만’인 경우 68.4%, ‘10년~30년 미만’은 60.0%로 나타났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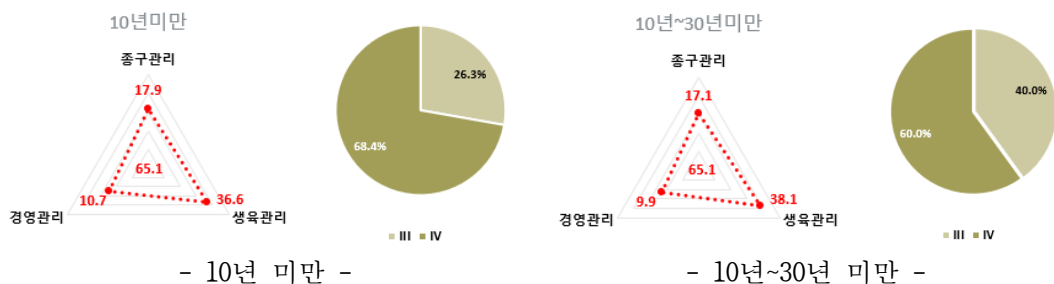


그림 6. 마늘 패널 재배경력별 경영 표준진단

경기도 마늘 패널의 경영 표준진단 결과는 표 6과 같다. 생육관리 부문의 ‘연작대책’ 지표에서 경기도 마늘 패널의 87.5%가 II등급(연작대책으로 석회시용, 퇴비증시, 돌려짓기, 미량원소살포, 약제소독, 기타 중 1가지 작업 실시)으로 응답하여 ‘연작대책’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작대책 기술지도 및 농가적용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경영관리 부문의 ‘경영기록 및 분석’, ‘마케팅 및 판촉활동’, ‘경영컨설팅’ 지표에서 경기도 마늘 패널의 80% 이상이 하위 등급(I, II 등급)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판로확보 노력, 정기적인 경영컨설팅 등 경영관리 능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마늘 패널 부문별 경영 표준진단 등급

부 문	지 표	등 급				
		I	II	III	IV	V
종구관리	종구선택	2 (8.3)	5(20.8)	11(45.8)	4(16.7)	2 (8.3)
	종구갱신	3(12.5)	4(16.7)	6(25.0)	11(45.8)	-
	종구예조(전처리)	1 (4.2)	2 (8.3)	7(29.2)	12(50.0)	2 (8.3)
생육관리	토양검사 및 밑거름	-	-	9(37.5)	5(20.8)	10(41.7)
	파종시기	-	-	4(16.7)	14(58.3)	6(25.0)
	병해충방제	1 (4.2)	-	5(20.8)	10(41.7)	8(33.3)
	관수	1 (4.2)	4(16.7)	9(37.5)	6(25.0)	4(16.7)
	웃거름(추비)	3(12.5)	2 (8.3)	3(12.5)	7(29.2)	9(37.5)
	연작대책	-	21(87.5)	-	2 (8.3)	1 (4.2)
	종뿌기	-	3(12.5)	8(33.3)	12(50.0)	1 (4.2)
	수확 및 건조	-	1 (4.2)	6(25.0)	13(54.2)	4(16.7)
	수확방법	3(12.5)	3(12.5)	1 (4.2)	9(37.5)	8(33.3)
	경영기록 및 분석	20(83.3)	2 (8.3)	2 (8.3)	-	-
경영관리	경영계획	2 (8.3)	-	6(25.0)	10(41.7)	6(25.0)
	경영능력개발	-	6(25.0)	8(33.3)	9(37.5)	1 (4.2)
	위험관리	-	6(25.0)	6(25.0)	9(37.5)	3(12.5)
	판매방법	8(33.3)	1 (4.2)	4(16.7)	10(41.7)	1 (4.2)
	마케팅 및 판촉활동	12(50.0)	2 (8.3)	1 (4.2)	-	2 (8.3)
	경영컨설팅	11(45.8)	13(54.2)	-	-	-

다. 농업정책 인식 조사 결과

1) 농업정책 인식 조사 응답자 일반현황 분석

농업정책 인식 조사 응답자는 모두 90농가로 일반현황은 표 7과 같다. 응답자 연령분포는 ‘40세~60세 미만’ (48.9%)이 가장 많고, ‘60세 이상’ (32.2%), ‘40세 미만’ (18.9%)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소득 ‘9천만원 이상’ 이 37.8%로 가장 많았고, ‘5천만원~7천만원’ (17.8%), ‘7천만원 ~9천만원’ (15.6%), ‘3천만원~5천만원’ (15.6%), ‘3천만원 미만’ (13.3%) 순으로 확인되었다. 농업유형은 타작목과 함께 재배하는 복합농 비율이 7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업농(14.4%), 축산업 등 타직종을 함께 하는 복합농(12.2%)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경기도 농업경영체 패널 특성

(단위: 농가, %)

구분	계		논벼		콩		마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령	40세 미만	17	18.9	9	30.0	5	16.1	3	10.3
	40세~60세미만	44	48.9	12	40.0	16	51.6	16	55.2
	60세 이상	29	32.2	9	30.0	10	32.3	10	34.5
	계	90	100.0	30	100.0	31	100.0	29	100.0
영농 경력	10년 미만	19	21.1	8	26.7	5	16.1	6	20.7
	10년~20년 미만	18	20.0	8	26.7	9	29.0	1	3.4
	20년~30년 미만	18	20.0	4	13.3	7	22.6	7	24.1
	30년~40년 미만	18	20.0	4	13.3	5	16.1	9	31.0
	40년 이상	17	18.9	6	20.0	5	16.1	6	20.7
	계	90	100.0	30	100.0	31	100.0	29	100.0
농업 소득	3천만원 미만	12	13.3	4	13.3	3	9.7	5	17.2
	3천만원~5천만원 미만	14	15.6	5	16.7	6	19.4	3	10.3
	5천만원~7천만원 미만	16	17.8	7	23.3	3	9.7	6	20.7
	7천만원~9천만원 미만	14	15.6	3	10.0	5	16.1	6	20.7
	9천만원 이상	34	37.8	11	36.7	14	45.2	9	31.0
	계	90	100.0	30	100.0	31	100.0	29	100.0
농업 유형	전업농	13	14.4	9	30.0	1	3.2	3	10.3
	복합농(2작목이상)	66	73.3	18	60.0	28	90.3	20	69.0
	복합농(농업+축산업)	9	10.0	3	10.0	1	3.2	5	17.2
	복합농(농업+타직종)	2	2.2	-	-	1	3.2	1	3.4
	계	90	100.0	30	100.0	31	100.0	29	100.0

2) 농업정책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농업·농촌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는 표 8과 같다. ‘40세 미만’은 농업·농촌정책에 29.4%가 ‘만족’ (‘매우 만족’과 ‘대체로 만족’의 합산)으로 응답한 반면, ‘40세~60세 미만’과 ‘60세 이상’은 ‘불만족’ (‘매우 불만족’과 ‘대체로 불만족’)으로 각각 45.5%, 41.3%가 응답하여 연령대가 낮을수록 농업·농촌정책 만족도가 높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영농경력 ‘10년 미만’과 ‘20년~30년 미만’에서 ‘만족’ 비율이 31.6%, 33.4%로 높은 편이었고, ‘불만족’ 비율은 영농경력이 많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특히 ‘30년~40년 미만’에서 55.5%로 가장 높았다. 농업소득 ‘7천만원~9천만원’, ‘9천만원 이상’인 경우 ‘만족’ 비율이 각각 28.5%, 26.5%로 높은편이었고, ‘불만족’ 비율은 ‘3천만원~5천만원’에서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농업유형별로 전업농(단일작목)은 ‘대체로 만족’ (38.5%) = ‘보통’ (38.5%) > ‘매우 불만족’ (15.4%) > ‘대체로 불만족’ (7.7%) 순으로 나타났고, 복합농(작목 2가지 이상)은 ‘만족’ 비율이 21.2%로 나타났으며 축산업 또는 타직종과 농업을 함께 하는 복합농은 ‘불만족’ 비율이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 경기도 농업경영체 패널 농업·농촌정책 만족도 응답 분포

(단위: 농가, %)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령	40세 미만	-	-	2	11.8	10	58.8	5	29.4	-	-
	40세~60세미만	8	18.2	12	27.3	15	34.1	8	18.2	1	2.3
	60세 이상	3	10.3	9	31.0	12	41.4	5	17.2	-	-
	계	11	12.2	23	25.6	37	41.4	18	20.0	1	1.1
영농 경력	10년 미만	-	-	3	15.8	10	52.6	6	31.6	-	-
	10년~20년 미만	1	5.6	5	27.8	8	44.4	4	22.2	-	-
	20년~30년 미만	3	16.7	4	22.2	5	27.8	5	27.8	1	5.6
	30년~40년 미만	4	22.2	6	33.3	7	38.9	1	5.6	-	-
	40년 이상	3	17.6	5	29.4	7	41.2	2	11.8	-	-
	계	11	12.2	23	25.6	37	41.1	18	20.0	1	1.1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농업 소득	3천만원 미만	-	-	2	16.7	8	66.7	2	16.7	-	-
	3천만원~5천만원 미만	3	21.4	4	28.6	5	35.7	2	14.3	-	-
	5천만원~7천만원 미만	2	12.5	5	31.3	7	43.8	2	12.5	-	-
	7천만원~9천만원 미만	3	21.4	3	21.4	4	28.6	3	21.4	1	7.1
	9천만원 이상	3	8.8	9	26.5	13	38.2	9	26.5	-	-
계	11	12.2	23	25.6	37	41.1	18	20.0	1	1.1	
농업 유형	전업농	2	15.4	1	7.7	5	38.5	5	38.5	-	-
	복합농(2작목이상)	7	10.6	19	28.8	26	39.4	13	19.7	1	1.5
	복합농(농업+축산업)	2	22.2	2	22.2	5	55.6	-	-	-	-
	복합농(농업+타직종)	-	-	1	50.0	1	50.0	-	-	-	-
	계	11	12.2	23	25.6	37	41.1	18	20.0	1	1.1

가장 관심있는 농업·농촌 이슈로 ‘농촌인력 부족’ (25.0%), ‘기후변화(이상기후 등)’ (18.9%), ‘농산물 가격 안정’ (17.8%),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9.4%), ‘청년농 육성 및 청년 창업 지원’ (5.6%), ‘공익직불금’ (5.6%) 등으로 응답하였다(그림 7). 농업정책 등 정책 관련 정보 획득 경로는 30.6%가 ‘교육 및 훈련기관 프로그램’ 으로 응답하였고 ‘정부, 도, 시군 홍보물’ 또한 29.4%로 응답률이 높았으며, 최근 유튜브 시장 발전에 따라 ‘유튜브, 블로그 등 인터넷 검색’ 으로 응답한 비율이 14.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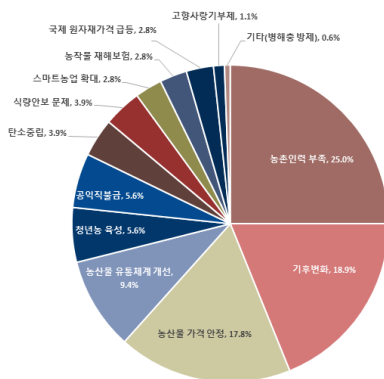


그림 7. 농업·농촌이슈 중 관심있는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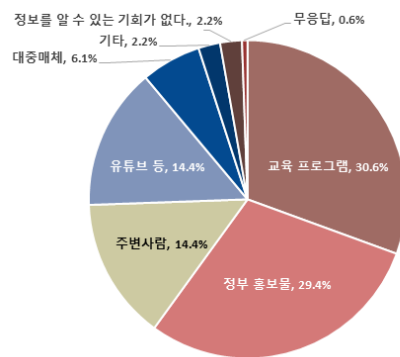


그림 8. 농업정책 정보 획득 경로

정부와 관계기관이 새롭게 실시되는 농업정책에 대한 소통(지원, 안내 등)이 불충분하다고 40.0%가 응답하였고 충분하다는 의견은 22.2%로 나타나 신규 정책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9).

농업·농촌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분야로 24.4%가 ‘농업인 소득증대’를 꼽았으며, ‘농업 지원 확대’ (17.2%), ‘농촌인력 확보’ (13.3%), ‘농산물 판로 확대’ (9.4%), ‘농산물 수급 안정’ (9.4%) 순으로 응답하였다(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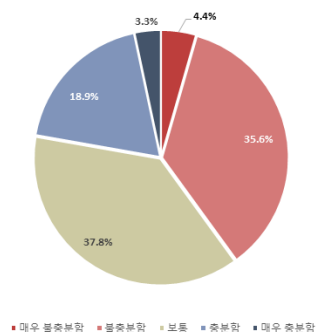


그림 9. 농업정책 소통 정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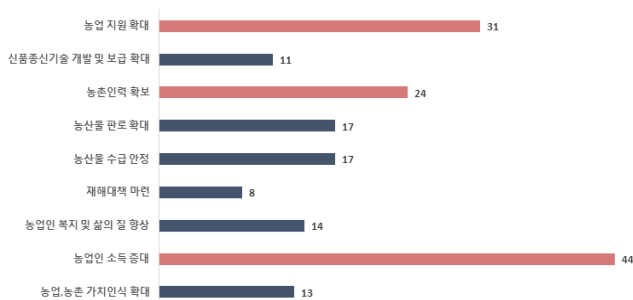


그림 10. 농업·농촌을 위한 정책방향 인식

2023년 시행되는 ‘전략작물직불제’와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 확대’에 대해 각각 47.8%, 53.4%가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과 ‘매우 잘 알고 있음’의 합산)으로 응답하였다. 가장 관심있는 농업·농촌 이슈로 ‘농촌인력 부족’을 꼽은 만큼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대한 인식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잘 모른다’ 33.3%, ‘잘 알고 있다’ 30.0%로 유사하게 응답하여 농업인 대상 홍보 및 사업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에 대해서는 ‘알고 있음’으로 45.5%가 응답하였으나, ‘농산물 온라인거래소’에 대해서는 73.4%가 ‘모름’ (‘잘 모름’과 ‘전혀 들어본 적 없음’의 합산)으로 응답하여 2023 주요 농업정책 중 인식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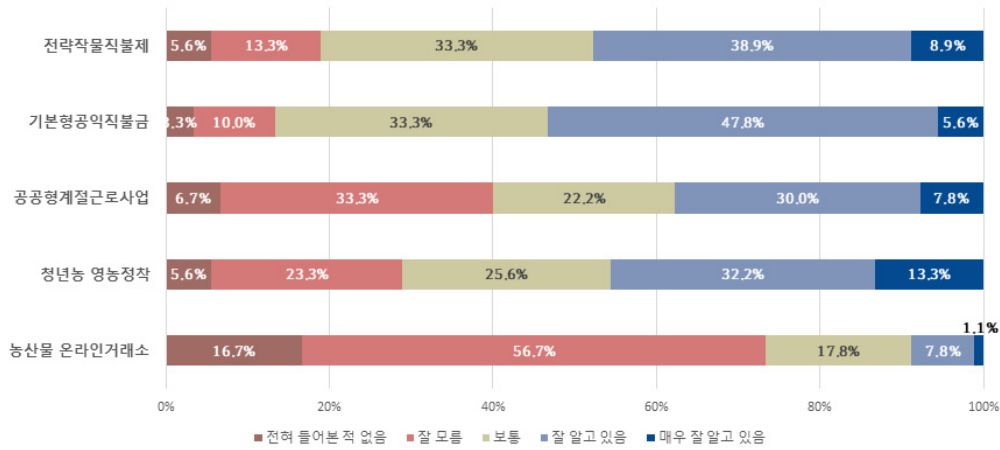


그림 11. 2023년도 농업정책 인식

3)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한 인식

경기도 농업경영체 패널 특성에 따른 전략작물직불제 참여의사는 그림 12와 같다. 농업경영체 전체 패널 중 논을 가지고 있는 75농가를 대상으로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고, 패널의 61.3%가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해 ‘참여의사가 있다’ 라고 응답하여 관심과 호응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60세 이상’ 인 패널의 참여의사가 66.7%로 가장 높았으며, ‘40대~60대 미만’ 인 패널의 참여의사는 57.1%로 가장 낮았다. 영농경력 ‘10년 미만’ 일 때 전략작물직불제 참여의사가 73.3%로 가장 높았고 ‘30년~40년 미만’ 인 패널의 참여의사가 46.7%로 가장 낮아 영농경력이 많을수록 참여의사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 ‘3천만원~5천만원’ 에서 83.3%가 전략작물직불제 참여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소득 ‘7천만원~9천만원’ 인 패널의 참여의사(25.0%)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낮을수록 참여의사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소득 ‘3천만원 미만’, ‘9천만원 이상’ 제외). 전업농(단일작목), 복합농(작목 2가지 이상) 패널의 전략작물직불제 참여의사는 60% 정도로 나타났고, 조사료 등 전략작물 재배 후 사료로 이용 가능한 축산업 병행 복합농의 참여의사가 7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타직종을 함께 하는 겸업농은 100%(1농가)가 ‘참여의사 없음’ 으로 응답하여 전략작물 재배 및 이모작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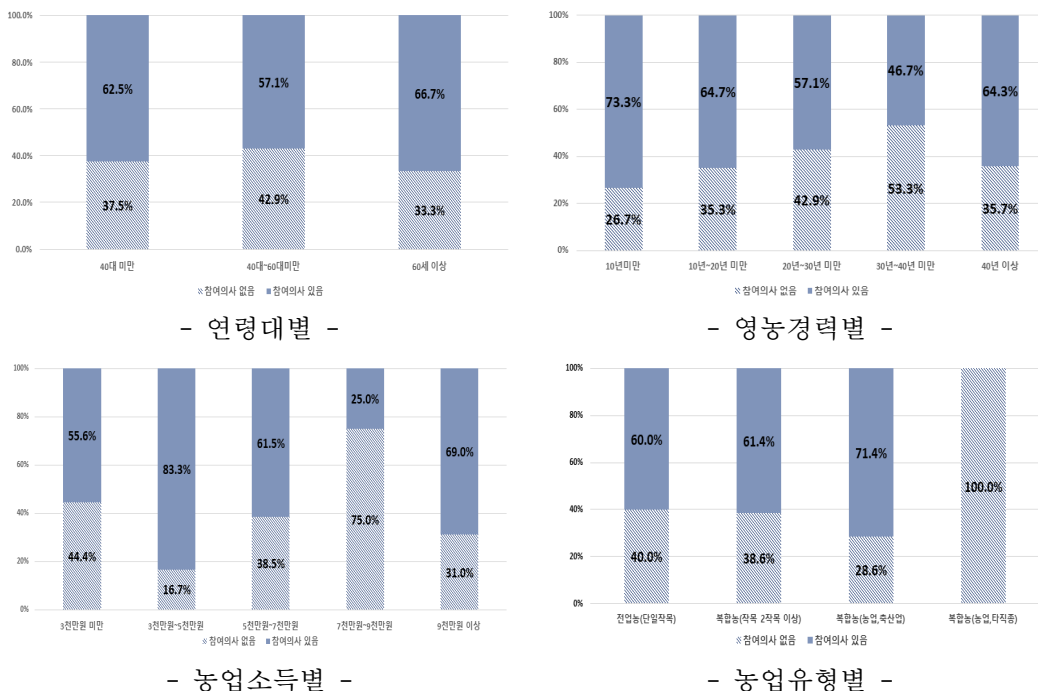


그림 12. 전략작물직불제 참여의사

전략작물직불제 참여 의사가 없는 이유는 ‘농가 소득보전 어려움’이 33.3%로 가장 많았으며 ‘전략작물 판로부족’ (23.5%), ‘기타’ (15.7%) 등으로 응답하였고, ‘기타’ 의견의 대부분은 농지가 전략작물 등 타작물 재배에 적합하지 않아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이었다(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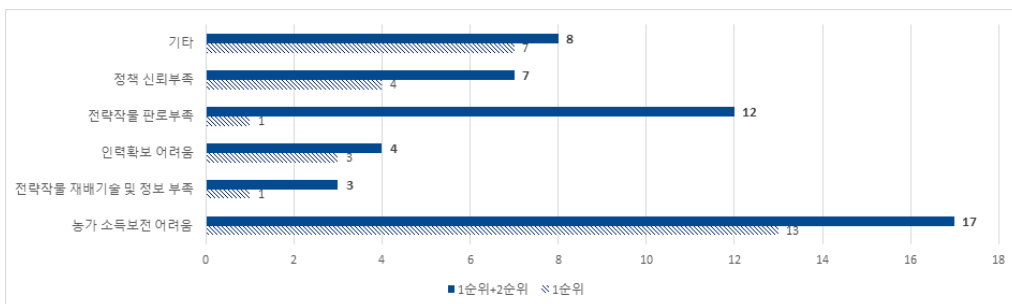


그림 13. 전략작물직불제 미참여 사유

‘식량자급률 향상’, ‘쌀 수급 및 가격 안정화’, ‘식량안보 강화’, ‘논 이용률 향상’, ‘농업인 소득향상’ 및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농업’ 6개 분야에 대한 전략작물직불제의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 6개 분야에 모두 ‘도움이 됨’ (61~80)으로 응답하였고, 그 중 ‘논 이용률 향상’이 72.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농업인 소득향상’이 70.9점, ‘식량자급률 향상’이 69.3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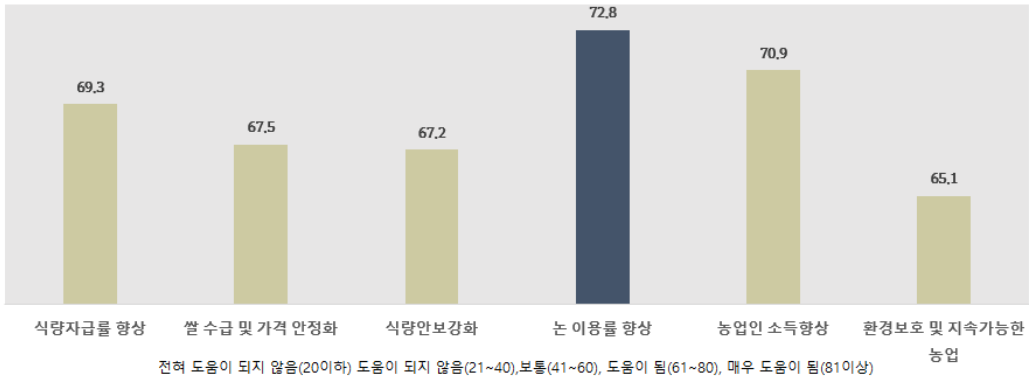


그림 14. 전략작물직불제 각 분야별 기여도

향후 전략작물직불제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로는 ‘전략작물 안정적인 판로 확보’, ‘지속적, 안정적인 정책 추진’, ‘적합 품종 개발’ 과 ‘농자재 및 농기계 지원’ 순으로 응답하여 전략작물직불제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시행을 위해 중장기적인 정책 보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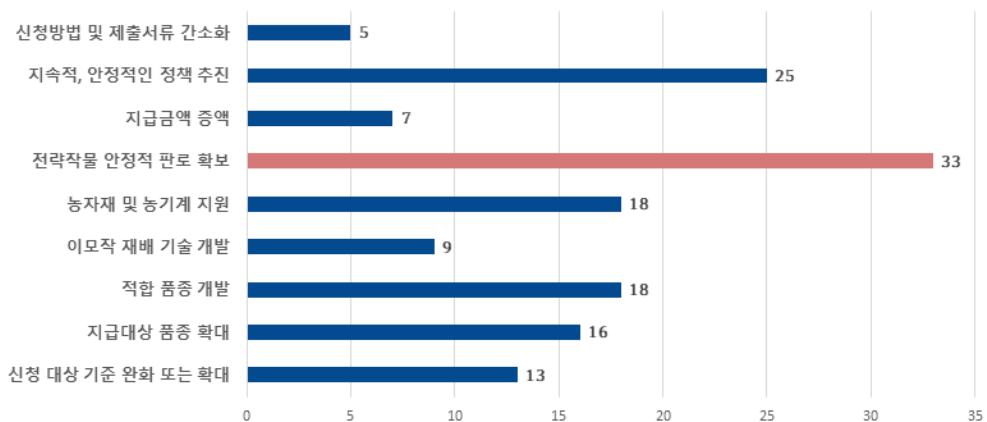


그림 15. 전략작물직불제 개선방향 인식

4) 농업경영체 패널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분석

농업경영체 패널의 주요 정책 건의사항으로 청년농 외 50~60대 귀농인 대상 지원정책과 경영체등록제도 개선이 있었다. 농업·농촌 문제점으로는 판로확보, 지역특성에 맞는 재배기술의 부족이라고 응답하였다. 전략작물직불제 관련 주요 건의사항은 경기도 지역 및 지역 내 이모작에 적합한 품종 개발, 작목 확대, 전략작물 재배용 농기계 지원 및 대여사업, 논농지 집단화, 판로확보에 대한 의견이 대부분이었다(표 9).

표 9. 농업경영체 분야별 건의 사항

분야	건의사항
농업정책	청년농 위주의 농업정책으로 중장년층과의 균형있는 지원 청년농 육성을 위한 지원금 이외에 실습 기회 제공 등의 실질적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선 실제 농사를 지은 농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 보완 자재비, 농기계 등 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정책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일방적인 정책 수립이 아닌 농민과 소통을 통한 실정에 맞는 정책
농업·농촌문제	농촌 노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으로 인하여 농가 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 농지은행을 통한 토지배분이 청년층에만 집중되어 보완 필요 판로 확대 시대와 지역 특성에 맞는 신품종 및 신기술 개발 저온저장고, 권역별 대여 농기구, 종자구입비 등의 정부 지원
전략작물 직불제	경기지역 쌀은 높은 수매가로 타작목 전환이 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 농가 소득 보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증액 필요 재배조건 및 환경에 적합한 전략작물 품종 및 타작목 확대 습해에 강한 콩 품종 및 이모작이 용이한 품종 개발 전략작물의 건조, 저장고, 공공수매처 등 안정적인 판로확보 벼 대체작목 수확을 위한 농기계 지원 또는 대여사업 전략작물 재배용 논농지 집단화 (연결된 논 수로로 이웃농가 협조 없이는 전략작물 재배가 어려운 실정) 지속적인 정책 추진 새로운 품목에 대한 재배기술 등 교육 지원 축산농가와 연계를 통한 조사료 등의 판로 지원

논 이용률 향상 목적이 포함된 전략작물직불제의 미참여 사유로 ‘농지가 전략작물 등 타작물 재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 개선방향으로 ‘적합 품종 개발’, ‘이모작 재배 기술 개발’ 등을 선택하는 등 품종과 기술에 대한 수요가 확인되었다. 또한 콩의 경우 습해에 강한 콩 품종, 새로운 작목에 대한 재배기술이 필요하다는 패널 건의사항에 따라 농업인이 기상환경과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교육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가루쌀, 밀 재배 시 소득보전을 위해 지역 내 다양산 소비처(베이커리, 가공업체 등)와 연계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축산농가와 연계하여 조사료 및 농업부산물을 제공하고 퇴비로써 가축분뇨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 내 경축순환형 모델의 개발 및 지원책이 요구된다.

4. 적 요

- 가. 경기도 논벼 패널의 경영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이모작 도입 등 논 이용률 향상 방안 마련, 농기계 관리 노력, 파종/이앙, 수확 및 수확 후 처리 기술 지도, 마케팅 실천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콩 패널은 농업인 개별 경지 정리, 논밭 이용률 향상 노력, 경지 정리 및 이모작 작물, 작부체계 관련 연구·지도로 경영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마늘 패널의 연작대책 기술지도 및 농가적용, 다양한 판로확보 노력, 정기적인 경영컨설팅 등 경영관리 능력 보완을 통해 경영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 나. 농업정책에 대한 농업인 인식 조사 결과, 농업·농촌정책에 대해 ‘만족’보다 ‘불만족’이라는 의견이 약 1.8배 높게 나타났으며, 관심있는 농업·농촌 이슈는 ‘농촌인력 부족’, ‘기후변화’, ‘농산물 가격 안정’,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청년농 육성 및 청년 창업 지원’ 순으로 응답하였다.
- 다. 경기도 농업경영체 패널 중 논을 보유하고 있는 75농가를 대상으로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행하였고, 그 중 61.3%가 ‘참여의사 있음’으로 응답하여 관심과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전략작물직불제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로는 ‘전략작물 안정적 판로 확보’, ‘지속적·안정적인 정책 추진’, ‘적합 품종 개발’과 ‘농자재 및 농기계 지원’ 순으로 응답하여 전략작물직불제 참여율 향상을 위해 경기지역에 적합한 품종과 생산한 전략작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인용문헌

- 김응규, 황성혁, 한두봉. 2016. 쌀 생산비 패널자료를 이용한 경영규모별 규모의 경제효과 분석. 한국농식품정책학회. 43(1):67-85

김태후, 민선형, 임준형, 유찬의. 2023. 2018-2022년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시사점. KREI 농정 포커스

김혜민, 임성환, 박병식. 2016. 무상보육정책의 만족도 분석과 개선방안: 도·농, 기관유형, 영·유아의 보육여건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8(3):465-490

농림어업총조사. 2020. 통계청

농산물소득자료집. 2022. 농촌진흥청

윤수재, 황태연. 정책만족도와 소통만족도 간의 영향요인 분석: 정부소통노력의 직·간접적 효과를 중심으로. 2022.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2(3):83-114

이춘수, 이항아, 최돈우, 양성범. 2021.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주거기준 및 비공식 경로를 통한 고용에 대한 인식조사: 경북 지역 농산물소득조사 농가를 대상으로.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12):209-217

6. 연구결과 활용제목

- 경기도 농업경영체 패널 농업정책 인식과 시사점(자료발간)

7. 연구원 편성

세부과제	구분	소속	직급	성명	수행업무	참여년도
						'23
농업경영체 패널 구축 및 활용 연구	책임자	작물연구과	농업연구사	김혜형	세부과제총괄	○
	공동연구자	작물연구과	농업연구관	이원석	분석결과 검토	○
	〃	〃	농업연구사	이정명	자료조사	○
	〃	〃	농업연구관	이영순	연구방향 제시	○